

# 한글과 세계문자의 미래를 꿈꾸다

전북도, '세계문자 전시·체험행사' 개최... 4개 분야 11개 행사 다채롭게 진행

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글과 세계문자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세계문자 전시·체험행사'를 열고 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도가 세계문자의 역사와 가치 및 한글 서예를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행사는 △개막행사 △전시행사 △특별공연 △체험행사 등 4개 분야 11개 행사로 진행되며, 개막행사에는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와 송하진 조직위원장, 이병도 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양오봉 전북대총장을 비롯한 김병기, 조수현, 송현숙 등 서예계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일주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시행사에는 △세계 고대문자 서예전 △세계 고대문자 영상전 △아랍문자의 어울림전 △조선시대 한글 유산의 원형과 한글 서예 △전라북도 상품명 글꼴 디자인 등 총 73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세계문자를 소개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다.

전시행사가 끝난 후에는 도울로 잘 알려진 김용욱 교수가 세계문자 역사에 대한 인식론적 탐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특별강연은 개막일 도울 김용욱 교수에 이어



전북도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글과 세계문자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세계문자 전시·체험행사'를 열고 있다.

삼석 김병기 교수가 10월 10일 강사로 나서 '한국의 미와 한글서예'를 주제로 강연한다.

또한, 체험행사로는 △목판본체험 △활판 인쇄체로 만드는 책갈피 체험 △글꼴디자인 꾸미기 △전통문양 및 글꼴 타투스티커 체험 등 풍성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문자는 지금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어온 인류사를 뒤흔든 기둥이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도 그중 하나이다"며, "문자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이번 전시와 강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도립미술관, 국악 공연 '소리를 그리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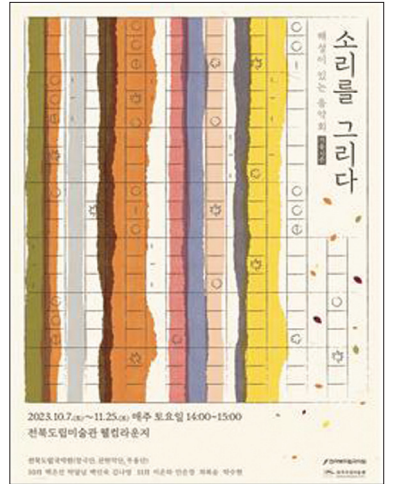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가을을 맞이해 전북도립국악원과 공동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국악 공연으로 JMA Friends Event '소리를 그리다'를 개최한다.

'소리를 그리다'는 아름다운 모악산의 계절 변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봄에 이어 가을을 배경으로 선보이며, 도립국악원의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의 수준높은 무대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야외정원 웰컴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첫 공연인 7일 전북도립국악원의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도라지, 뱃노래 등 '백은선 - 흠은 가락'을 시작으로 △10월 14일 박달님 - Time & Space △10월 21일 '백인숙의 춤 - 풍류담화' △10월 28일 '김나영 - 해화(諧和)' △11월 4일 '이은하의 춤 - 향인설화' △11월 11일 '구호 안은정 - 두 개의 달' △11월 18일 '차복순 - 동초제 흥보가' △11월 25일 '박수현 - 동초제 심청가'의 공연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JMA Friends Event '소리를 그리다'는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 이외에도 미술관에서는 다



양한 존재들의 개별성·관계성을 동시에 주목하는 작품들과 함께하여 평등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특별전 '비안하요, 프랑켄슈타인'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는 11월 26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 미래 엔터테이너 위한 AI 아이돌

11일 '전북지식살롱' 13회차 최초 버추얼 걸그룹 제작자 박지은 대표 강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지사장 오충섭)와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5시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1층에서 '전북지식살롱' 13회차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초 버추얼 걸그룹을 제작한 (주)펄스나인(Pulse9)의 박지은 대표가 '미래의 엔터테이너를 위한 AI 아이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박지은 대표는 2017년 (주)펄스나인을 설립한 후,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 '딥리얼(Deep real)' AI 기술을 활용해 버추얼 휴먼을 탄생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버추얼 걸그룹 '이터니티'는 K-Pop 산업의 새로운 매체로 불리며 국내 버추얼 휴먼 중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터니티'는 버추얼 휴먼 중 유일한 K-Pop 스타로 영국 왕립박물관(V&A)의 기획전시인 '한류! 코리아웨이브'에 초청 전시됐다. 또한 영국 공영방송 BBC, 프랑스 AFP 통신, 중국 CGTN 등 해외에서 K-Pop 산업의 새로운 매체로, 신기술을 통해 현존하는 아티스트와 공존할 수 있는 버추얼 아이돌로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이터니티'의 'DITDTGMGN'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가 650만회를 돌파, 해외에서 발생하는 조회수가 9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인기를 증명해 바 있다.

한편 '이터니티'는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오는 14~15일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다. 미디어 아트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버추얼 휴먼의 특징을 살린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은 메타버스 및 가상인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석은 포스트 내 QR코드 또는 <https://naver.me/F8bJdkwi>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6)로 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 백희나 작가 그림책 '이상한 엄마' 뮤지컬로 재탄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2~14일 공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오는 12~14일까지 모악당에서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원작을 뮤지컬화 한 '이상한 엄마'를 기획 공연으로 무대에 올린다고 전했다.

'이상한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도움이 간절할 순간 나타난 '이상한 엄마'의 손길로 모든이의 염원을 담은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에서 태동했다.

전당에 따르면 뮤지컬로 재탄생한 '이상한 엄마'는 (주)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에 선정, 2019~2022 어린이/가족공연 4년 연속 판매랭킹 1위인 뮤지컬 '할시랑'의 제작사 할리퀸크리에이션(주)가 백희나 시리즈 세 번째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번 뮤지컬은 원작이 세계적인 작가와 믿고보는 제작진의 조합으로 개막 전부터 관

객들에게 큰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원작의 이야기에 섬세한 스토리 구성을 추가해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중독성 있는 음악과 다양한 무대효과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평범한 일상의 공간인 '집'에서 펼쳐지는 엉뚱한 이야기지만 귀여운 '이상한 엄마'의 등장으로 관객들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안내한다.

'호호'와 '이상한 엄마'가 보내는 유쾌한 하루는 반복되는 일상과 육아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한다.

특히 뮤지컬 곡들은 아이와 부모가 공감하는 가사에 따뜻한 선율이 더해져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공연 단체 예매자 중 선착순 3팀을 선정,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연장 투어 및 배우들과의 사진촬영을 이벤트로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